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즉시	배포일시	2019. 2. 14.(목) 14:00
IOM이민정책연구원 IOM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IOM·OIM / IOM·MRTC)		담당부서	연구교육실(국제협력기획관)
		담 당 자	최 서 리 031)920-5640

‘호주와 뉴질랜드 한인 공동체와 세대’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 IOM이민정책연구원, 창원대학교, 디킨대학교, 오클랜드대학교 공동개최 -

□ IOM이민정책연구원은 오늘 2월 14일(목) 창원대학교, 디킨대학교, 오클랜드대학교와 공동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한인의 삶에 대해 발표하는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IOM이민정책연구원은 창원대학교, 호주 디킨대학교,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6년 이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특정분야 기획연구사업의 일환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의 한인 연구: 새로운 세대의 부상과 (탈)공동체적 삶의 현재와 미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오늘 세미나는 지난 3년간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문경희 창원대학교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한 학술세미나는 8인의 연구자들이 사회적 자본, 노동시장 기회구조, 자녀교육, 주거지 선택, 문화, 정체성 등의 다양한 주제로 호주와 뉴질랜드 한인의 삶을 조명하였습니다.

□ 이창원 IOM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호주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한인 1.5세와 2세의 직업 선택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들도 한인 네트워크를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과 호주의 교류가 보다 활발해 지면서 호주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호주 한인 1.5세와 2세 중에는 부모나 다른 한인이 경영하던 청소업 등의 사업을 물려받아 주류사회로 확장시키는 경우가 있고, 한국 기업의 호주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로펌에서 한인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서리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호주 시드니 근교에서 개최된 한인 축제의 역사를 살펴보고, 현재 한인 축제들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호주의 다문화정책이 구현되는 방식과 한인이 정체성을 표현하는 모습을 소개하였습니다.**

○ 시드니 근교 캠시 지역은 한인 상권이 처음 들어선 지역으로 1990년대 한국인들이 유입하면서 '시드니의 서울' 혹은 '작은 한국'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이래 한인 상권이 위축되면서 캔터부리시(Canterbury Council)는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알려 지역 상권을 살리려는 목적으로 1999년 캠시 한국 문화·음식축제(Korean Food Festival)를 개최하였습니다. 매년 한인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던 이 축제는 지역 내 한인의 규모가 축소하면서 2004년부터 캠시음식축제(Campsie Food Festival)라는 명칭으로 호주 내 다문화 음식을 맛보는 행사로 탈바꿈하였습니다.

○ 최서리 연구위원은 최근 K-Pop 등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로 현재 호주 내 한인 축제에서는 K-Pop이 주요 소재로 활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1.5세, 2세의 한인 축제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장은 “호주는 백호주의를 극복하고 1970년 이래 기술이민과 가족이민 등 다양한 이민경로와 다문화정책을 선도적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이번 학술세미나는 호주로 이주하여 정착한 한인의 경험과 관점을 통해 호주의 이민정책과 다문화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특정분야 기획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연구팀은 호주와 뉴질랜드 한인에 관한 총8권의 총서를 출판할 예정입니다.

○ 연구팀은 종합적인 학제간 연구를 통해 해외 한인 연구분야에서 미개척 분야로 남아있었던 호주와 뉴질랜드 한인 차세대에 관해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해외 한인 연구의 지평을 넓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붙임. 행사사진>






Ethnicity, Generation, and Community: People with a Korean background living in Aust